2004년 1학기 (5월 19일) 사회과학의 철학 정재은

Harold Kincaid

"Defending Laws in the Social Sciences"

> 정량적이고 보편적인 물리학을 과학의 표준으로 볼 때, 사회과학은 불충분하게 여겨진다. 사회과학에는 잘 입증된 법칙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도 안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물리학 숭배라는 실증주의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일 뿐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법칙을 옹호하려 한다(가능성과 실재성 모두). 법칙과 설명과 입증은 서로 협력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일부분이 설명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 법칙을 옹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필수적이다.

I

▷ 철학자들이 사회 법칙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몇 가지 이유들:

(1) multiple realization (2) 사회 이론이 닫혀있지 않다. (3) 믿음, 욕구, 행위와 관련된 법칙이 없다.

(1) ▶ John Searle의 견해 :

1. 사회 종(種)은 무한히 많은 물리적 실현을 갖는다.
2. 어떤 종이 무한히 많은 물리적 실현을 가질 때, 물리적인 것에 대한 체계적 연결(systematic connection)은 없다.
3. 어떤 종이 물리적인 것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진정한 법칙을 지지할 수 없다.
4. 따라서 사회 종은 진정한 법칙을 지지할 수 없다.

▷ 검토 :

> "체계적 연결"이 사회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의 법칙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3번 전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연과학의 법칙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 "체계적 연결"을 수반으로 기술되는 느슨한 관계로 본다면, 2번 전제가 거짓이 된다. 수반은 다중 실현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2) ▶ 사회적 영역이 닫혀있지 않다(not closed)는 견해 :

▷ 물론 사회 시스템은 명백하게 열린 시스템이다. 물리적, 생물학적 요소에 의존.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회 법칙의 불가능성을 얘기할 수 없다. 결정적인 논점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이 외부 요소를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3) ▶ 심리적 설명의 본성: Davidson은 믿음, 욕구, 행위 등의 정신 상태와 관련된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① 민간심리학(falk psychology)의 개념이 사회과학의 느린 발전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 법칙의 불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② 믿음-욕구와 관련된 심리학 이론은 행동 이론의 최종판이 아니며, ③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거시 수준에서 진행되므로, 개인 행동을 나타내는 이론의 실패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II

▶ Jon Elster 등은 미시 수준의 메커니즘이 제시되지 못하는 거시 수준의 법칙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 어떤 의미에서 거시 법칙이 불충분한가? 비판자들은 사회 법칙이 설명적이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거시 법칙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판자들은 메커니즘이 파악되지 않는 한 거시 수준의 법칙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메커니즘이 간섭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그러나 모든 사회 법칙을 입증하기 위해 유관 메커니즘을 밝힐 필요는 없다.

▷ 그렇지만 인과 법칙인 사회 법칙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A가 C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C의 진짜 원인일지도 모르는) B1,...,Bn의 요소들을 제어하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을 다 알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요소들을 잘 제어하는 한, 인과 법칙은 특정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 없이 입증될 수 있다. (실제 메커니즘을 정확히 밝혀내면 인과 법칙이 입증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다.)

▷ 사회과학의 특수한 점?

> 사회 법칙의 거시적 성격 때문? NO. 기체 법칙, 개체군 유전학과 생태학의 법칙들 역시 본래 거시적이다.

> 사회 법칙의 목적론적 성격 때문인가?